

전문의 부족한 전남광주... 의료공백 갈수록 커진다

한은 '전남·광주지역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분석'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광주 290명·전남 81명 그쳐

전남 입원 진료비 41% ↓...중증의료 인프라 취약

전남지역 의료서비스 소비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비중이 광주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 치료보다 수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서비스에서 역외 유출 규모가 더욱 커졌다. 의료기관 접근성 역시 전남이 전국 광역도 가운데 가장 취약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필수 의료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자료 등을 활용해 분석한 '전남·광주지역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24년 입원 진료비 기준 광주의 역내유입률은 36.9%, 역외유출률은 17.2%로 나타났다. 광주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의료서비스 소비보다 다른 지역 거주자가 광주에서 진료받는 비중이 높은 구조다.

반면 전남은 역내유입률이 12.9%에 그친 데 비해 역외유출률은 41.0%에 달했다. 전남의 역외유출률은 9대 광역도 가운데 3번째로 높았으며, 광주의 역내유입률은 8대 특·광역시 가운데 3번째로 낮았다. 광주가 주변 지역의 의료수요를 흡수

하는 동안 전남은 상당한 의료수요를 외부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수술 분야에서는 이 같은 격차가 더욱 선명했다. 2024년 전체 수술 진료비 기준 광주의 역내유입률은 45.8%, 역외유출률은 23.8%였다. 전남은 역내유입률 13.1%, 역외유출률 57.1%로 나타났다. 입원 치료보다 수술에서 전남 환자의 지역 외 의료기관 이용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의료서비스 소비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배경에는 의료기관 접근성 차이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지역 전체 인구 가운데 2023년 기준 40.1%는 기준시간인 30분 이내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접근할 수 없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도 180분 이내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가 8.9%로 집계됐다. 두 지표 모두 9대 광역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준시간 내 실제 의료이용률도 낮았다. 전남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률

은 53.8%, 지역응급의료센터는 30.6%에 불과해 모두 9대 광역도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전남의 국토면적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넓은 데 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의료기관 수가 부족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의료비 규모에서도 지역의 특성이 드러난다. 2024년 환자 거주지 기준 총 진료비는 광주 3조6000억원, 전남 5조6000억원으로 각각 특·광역시와 광역도 가운데 중위권 수준이었다. 그러나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광주 266만3000원으로 8대 특·광역시 중 2위, 전남은 320만7000원으로 9대 광역도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전남은 고령층의 의료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의료 접근성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2024년 전남의 진료인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고령층일수록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 빈도

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 내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은 주민들의 의료 이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최근 발표된 '2026년 전남도 사회조사'에서도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확인됐다.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3.5점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불만족 요인으로 '진료·입원 대기시간'이 22.9%로 가장 많았고 '전문 의료인력 부족'이 13.9%로 뒤를 이었다.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뿐 아니라 전문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둘러싼 논의도 지역 의료 격차 해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가 발표한 사회조사에서도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국립의대 신설을 둘러싼 목표대와 순천대의 합의 여부가 지역 의료정책의

주요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최정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조사업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통합 이전을 활용해 광주와 전남을 포괄하는 광역차원의 의료불균형 해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각 지역의 의료수요와 공급 여건을 고려해 권역별 의료 거점을 구축하고, 전남지역에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 의료기관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사제와 국립의대 설립·육성 등을 통해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전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인 2024년 의료서비스 이용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통합 이후 광주·전남 간 의료서비스 연계와 접근성 개선을 과제로 제시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전남광주, 대한민국 최고 김치 명인 찾는다

대통령상 수여 김치경연대회...내달 3일까지 참가자 모집

배추김치·선택김치 2개 종목...서류심사 등 최종 5팀 시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내 최고 권위의 김치 경연인 '2026 대한민국 김치경연대회' 참가자를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

'대한민국 김치경연대회'는 대한민국 대표 발효식품인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김치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발

전시키 위해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특히 전국 김치 요리경연대회 중 유일하게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대회로, 전통성과 전문성은 물론 참가자의 창의성과 산업적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경연은 지정종목인 '배추김치'와 자유종목인 '선택김치'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배추김치' 종목은 주어진 기본 원재료만을 활용해 재료의 조합, 맛, 숙성 등 전통 김치 전문가로서의 김치 제조 역량을 평가한다. '선택김치' 종목은 가문이나 지역에서 전승돼 온 김치 또는 참가자가 직접 개발한 김치를 시연해 김치의 독창성, 우수성, 산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광주특별시는 다음달 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은 뒤 서류심사를 거쳐 같은달

11일 경연에 참가할 최종 20개 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20개팀은 오는 10월8일 예비 경연과 10월22일 본 경연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최종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1점(상금 3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점(상금 1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점(상금 100만원), 전남통합특별시장상 2점(상금 각 50만원) 등 총 5개 팀의 수상작을 시상한다.

수상작들은 오는 10월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33회 광주김치축제' 행사장에 전시돼 축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대한민국 김치의 전통과 창의성을 알릴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제33회 광주김치축제 누리집(<http://kimchi.gwangju.go.kr>) 또는 세계김치연구소 누리집(www.wikim.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배귀숙 농업통찰정책과장은 "광주김치축제와 연계해 진행되는 '대한민국 김치경연대회'는 전국의 김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김치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국내 대표 김치경연의 장"이라며 "김치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실력을 갖춘 분들이 많이 참여해 솜씨를 선보이고 대회를 빛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AI로 배우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

광주관광공사, 문화·역사 큐레이터 20명 배출

광주관광공사는 조선대학교와 함께 지역성인 인재양성체계(영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문화·역사 큐레이터 양성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총 2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의 문화·역사 관광자원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고, 이를 관광 콘텐츠로 기획·제작할 수 있는 실무형 관광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20명의 교육생은 총 10차시,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 관광 트렌드 분석, 스토리텔링, 현장답사, 관광자원 분석, 전문가 컨설팅 등을 단계적으로 경험했다.

특히 교육생들은 특별로 지역 문화·역사자원을 직접 발굴하고 이를 관광 콘텐츠로 재해석했다. 최종성과발표회에서는

필문 이선재 관련 역사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5·18 콘텐츠에 체험 요소를 결합한 관광 프로그램, 국립광주박물관의 마한 문화유산을 VR로 구현한 콘텐츠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이며 지역 관광자원의 콘텐츠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광주관광공사는 교육을 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취·창업 컨설팅까지 연계해 교육생들이 실제 관광산업 현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교육생들은 관광자원 이해부터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콘텐츠 기획·제작, 현장실습, 전문가 피드백, 성과발표, 개별 취·창업 컨설팅까지 관광 분야 진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경험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관광공사는 조선대학교와 함께 지역성인 인재양성체계(영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문화·역사 큐레이터 양성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총 2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다시 불붙은 '빚투'... 신용융자 32조원 돌파

코스피 반등에 빚내 주식투자 다시 증가

은행 신용대출도 석 달 새 5조4000억원 ↑

국내 중시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다시 늘고 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잔고가 32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은행권 신용대출도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차입 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신용융자거래 잔고는 32조4162억원으로 전월보다 5223억원 증가했다. 신용융자 잔고가 32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처음이다. 이달 4일 27조4038억원까지 떨어졌던 잔고는 이

후 꾸준히 증가하며 최근 4거래일 연속 늘었다.

신용융자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대표적인 빚투 수단이다. 이달 초 620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가 최근 6900선을 회복하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다시 빚을 내 주식 투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빚투 증가와 함께 위험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1일 미수금은 1조71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갚지 못해 주식이 강제 처분된 반대매매 규모는 483억원에 달했다. 전월 93억원보다 5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하루 만에 1.0%에서 4.4%로 높아졌다.

증권사 신용융자뿐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투자 목적의 차입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20일 109조7462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보다 소폭 줄었지만, 지난 5~7월 석 달 동안에는 5조4120억원 증가했다. 마이너스통장 잔액 역시 지난달 말 44조4669억원으로 2022년 8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차입 투자자가 시장 변동성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이다. 주가가 오를 때는 레버리지를 활용해 수익을 키울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급락하면 손실이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더해진다. 특히 최근 금융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형 신용대출의 금리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24일 서울 증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의 현황을 모니터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급락
코스피 6700선 무너져

코스피가 대형 반도체주들의 동반 하락에 3%대 급락 마감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15.99p(3.12%) 하락한 6696.9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1.88p(0.46%) 떨어진 6881.07에 출발해 하락 폭을 키웠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3조3192억원을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조 2917억원, 3조6758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코스피 약세를 이끈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환원 발표에도 주가가 8.7% 급락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국내 기업 사상 최고 규모인 최대 110조원에 달하는 주주환원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에 급등했던 주가는 오히려 사측의 공시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

전 거래일에 상승세를 나타냈던 SK하이닉스도 하락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5만6000원(3.24%) 하락한 167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외에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 삼성전기(0.15%), LG에너지솔루션(5.39%), 삼성바이오로직스(1.42%)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약세를 나타냈다.

특히 삼성전자가(8.55%), SK스퀘어(4.19%), 삼성물산(7.84%)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1.38p(1.42%) 오른 813.33을 기록했다.

수급별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249억원, 2417억원을 순매수했지만 개인이 2604억원을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선 에코프로(7.59%), 에코프로비엠(10.80%), 파마리서치(3.87%) 등이 급등한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2.09%), 주성엔지니어링(1.54%), HLB(2.07%), 이로테크닉스(4.08%) 등은 하락했다. 김은지 기자